

그것이 알고 싶다…20만 명이 외쳤다

국민청원 20만 돌파…답변 기다려 방송금지가처분 이의신청 가능성 SBS 측 “아직 법적 대응 하지 않아” 유튜브 방송 거론…명예훼손 부담

가수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시청자 관심이 한 달 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2일 방송 금지를 결정한 법원의 판단에 “국민의 알 권리 침해”라며 반발하며 한 시청자가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2일 20만 명 동의를 얻어 3일 오후 현재 21만2000여 명에 달하기까지 한다. 이에 관련 내용이 방송될 수 있을지 새삼 주목된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1995년 사망한 김성재의 사인을 추적하는 내용을 취재해 8월 초 방송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인의 전 여자친구로 알려진 김 모 씨가 인격권 침해와 명예훼손을 이유로 법원에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법원이 이를 인용했다. 이에 따라 해당 내용은 전파를 타지 못했다. 이에 연출자 배



두스 출신 고 김성재 사망 사건을 다룬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을 요청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3일 현재까지 21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사진은 예고편 장면. 사진출처 | SBS 방송 편지

정훈 PD는 “방송 포기 안 한다”며 의지를 드러냈다. 현진영, 채리나 등 김성재와 함께 활동한 동료 가수들을 비롯한 시청자들도 청원 동의에 동참했다.

다만 이번 청원은 방송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대표 변호사는 3일 “이미 법원이 판단을 내린 사항이

다”면서 “SBS가 법원 결정에 대해 정식 소송을 진행한다면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방송을 주장하는 데 자료로 쓰일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SBS가 법원 결정에 이의신청을 제기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SBS의 한 관계자는 “아직

이의신청 등 법적 대응은 하지 않고 있다.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청원 등의 결과는 방송에 대한 시청자 관심으로 받아들인다”고 덧붙였다.

방송가 안팎에서는 해당 내용을 방송이 아닌 다른 플랫폼을 통해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SBS 관계자도 “유튜브를 통한 공개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향후 명예훼손 등 위법 논란을 몰고올 수도 있다. 이미 법원이 해당 우려로 방송을 하지 말라고 판단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그렇게 하면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책임을 안게 돼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1995년 11월20일 서울 흥은동의 한 호텔에서 김성재가 숨진 채 발견되면서 이후 사인을 둘러싼 의혹이 증폭됐다. 당시 그의 시신에서 28개의 주삿바늘 자국과 함께 동물마취제로 알려진 졸레틸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었다. 전 여자친구 김 씨가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지만 법원은 최종 무죄 판결을 내렸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첨단 기술력 보여준 괴수 영화…봉준호의 저력

1300만 관객 동원…흥행서도 대박

‘설국열차’ ‘옥자’ 제작으로 이어져

한국영화 100년 최고의 작품

📽 2006년작 봉준호 감독 ‘괴물’

2006년 7월. 이전까지 없었던, 그야말로 ‘명불허전’의 영화가 극장에 걸렸다. 한강에 느닷없이 나타난 괴생물체, 그에 맞선 한 가족의 사투를 그린 ‘괴물’이다. 당시 최고의 첨단 기술력으로 구현한 한국 괴수 영화의 시작, 사회비판과 풍자를 녹여낸 정점의 블록코미디가 봉준호 감독의 손에서 탄생했다.

‘괴물’은 한국영화 100년사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대표작 가운데 하나다. 한국 영화 전문가 100인이 ‘최고의 작품’ 중 한 편으로 ‘괴물’을 꼽은 이유는 그만큼 다양하다. 당대 최고 수준의 기술을 활용해 괴생물체를 내세운 블록버스터 크리처 무비, 장르영화에 사회비판적 메시지를 뒤섞은 과감한 시도, 배급사 기준 1300만 관객을 흡수한 폭발적인 흥행 성과가 ‘괴물’을 설



2006년 개봉한 영화 ‘괴물’은 한국 괴수영화의 새로운 장을 연 명작으로 평가받고 있다. 사진은 영화의 한 장면. 사진제공 | 영화사 청어람

명한다.

2003년 ‘살인의 추억’을 통해 스틸러의 시대를 연 봉준호 감독은 불과 3년 만에 내놓은 ‘괴물’로 다시금 그 저력을 증명했다. 당시 봉 감독은 “고등학교 시절 잠실

대교 교각을 기어오르는 이상한 괴생물체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며 “감독이 되면 꼭 영화로 만들고 싶었다”는 바람을 자주 밝혔다.

영화는 평화로운 한낮의 한강 둔치에서

시작한다. 매점 주인 강두(송강호)는 한강 다리에 매달려 움직이는 괴생물체를 발견한다. 휴대전화를 들어 그 모습을 카메라에 담기 바쁜 사람들을 향해 순식간에 괴물이 돌진하고, 둔치는 금방 아수라장이 된다. 그 틈에 강두의 중학생 딸 현서(고아성)를 낚아챈 괴물은 한강 속으로 유유히 사라진다. 강두와 부친(변희봉),운동권 출신 백수 남동생(박해일)과 양궁선수인 여동생(배두나)은 현서를 찾아 나선다.

그렇다고 ‘괴물’을 블록버스터 괴수영화로만 국한할 수는 없다. “영원한 장르감독 이길 바란다”는 봉 감독의 지향이 집약된 동시에 사회와 세상을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선이 담겼고, 계급계층에 대한 문제의식을 확고히 다진 작품이기도 하다. ‘괴물’은 이후 봉 감독이 ‘설국열차’와 ‘옥자’로 나아가는 데 기여했고, 그렇게 공고해진 감독의 역량은 올해 5월 ‘기생충’이 한국영화 최고 성과인 칸 국제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하는 데에까지 이어졌다.

이해리 기자 gdl1024@donga.com

공유가 돌아온다…정유미와 함께

영화 ‘82년생 김지영’ 내달 개봉 3년 만에 스크린 복귀 기대 만발

배우 공유가 돌아온다. 3년 만이다. 요즘처럼 배우들의 ‘다작’ 활동이 활발한 상황에서 공유의 3년 공백은 꽤 이례적이다. 그만큼 심사숙고했다는 의미다. 복귀에는 ‘흥행 파트너’로 통하는 배우 정유미가 함께한다.

공유는 주연작 ‘82년생 김지영’(감독 김도영·제작 불바람영화사)을 10월 선보인다. 갑자기 친정엄마, 언니 등으로 빙의되는 증상을 보이는 평범한 30대 여성 김지영과 남편 그리고 가족의 이야기다. 사회적인 반향을 몰고 온 조남주 작가의 베스트셀러 동명 소설을 옮긴 작품으로, 공유와 정유미가 주연해 더 화제가 됐다.

공유의 스크린 복귀는 2016년 ‘밀정’ 이후 3년 만이다. 같은 해 tvN 드라마 ‘도깨비’의 흥행에 힘입어 데뷔 이후 가장 뜨거운 인기를 얻었지만, 이후 작품 선택에 신



중을 기하면서 공백을 갖게 됐다.

시선을 끄는 또 다른 대목은 공유가 정유미와 세 번째 호흡을 맞췄다는 점이다. 절친한 선후배인 이들은 영화 주연으로 함께 나설 때마다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받았다. 2011년 ‘도가니’(466여만 명), 2016년 ‘부산행’(1156여만 명)을 통해 탁월한 파트너십을 증명했다.

‘82년생 김지영’에서 공유는 정유미의 남편이다. 원작은 물론 영화의 타이틀들은 정유미가 연기하는 ‘김지영’이지만, 이야기에서 공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그 못지않다고 제작진은 설명한다. 영화화를 위한 각색을 통해 공유의 캐릭터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관심을 더한다.

이해리 기자

‘클럽 H.O.T.’는 대동단결하라!

20~22일 고척돔 콘서트 개최 일찌감치 7만500석 티켓 매진

“클럽 H.O.T. 모여라!” 그룹 H.O.T.의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다.

H.O.T.의 멤버 문희준, 강타, 장우혁, 토니안, 이재원이 이달 20일부터 22일까지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두 번째 콘서트 ‘2019 하이파이브 오브 티에이저’(2019 High-five Of Teenagers)를 연다. 이미 입장권 예매 7분 만에 7만 500석이 매진되며 녹슬지 않은 ‘티켓 파워’를 과시해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이는 멤버들과 팬덤이 맞추는 호흡에서 나온다. 이번 무대는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앙코르 형식이지만 멤버들이나 팬들에게서는 제법 비장함이 느껴진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그룹 해체 17년 만

에 단독 콘서트를 통해 만났다. 콘서트 개최 문제를 그 이전 오랜 시간 논의한 멤버들은 각자 소속사들의 이해관계가 달라 좀처럼 확정을 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콘서트를 열면서 그만큼 준비기간은 짧기만 했다.

팬들의 아쉬움은 더욱 컸다. 지난해 그룹 해체 이후 17년 만에 열린 공연이라는 점에서 무대를 손꼽아 기다려왔던 팬들은 예전 추억을 회상하기 위해 H.O.T.를 상징하는 흰색 우비나 흰색 풍선, 응원봉 등 MD 상품을 구매하려 했다. 하지만 당시 주최 측이 각 3000~5000개 정도 밖에 제작하지 않아 수많은 팬들이 발길을 돌려야만 했다. 이에 올해는관련 MD상품을 다양하게 확대 제작하기로 했다.

팬들 역시 현재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티스트 그룹의 공연장 주변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이벤트를 참조해 H.O.T 멤버별 현수막과 대형풍선 등을 이용해 이들을 응원하며 3일간 축제를 즐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이정연 기자 annjoy@donga.com

연예

15

2019년 9월 4일 수요일

스포츠동아

‘사이코지만 괜찮아’

박신혜라면 괜찮아

드라마 출연 제안 받고 고민 중



박신혜

연기자 박신혜가 파격적 변신이라는 도전 과제 앞에 섰다.

3일 방송관계자에 따르면 박신혜는 내년 상반기 방송을 목표로 하는 미스터리 드라마 ‘사이코지만 괜찮아’ 출연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다.

반

사회적

인격장애를

지닌 인기

아동문학작가

역 때문이다.

박신혜는

20대를 대표하는

연기자로

로

맨틱

코미디와

멜로

장르에서

강점을

드러

내왔다.

그만큼

이번

역할

제안에

대한

고

민이

클

수밖에

없다.

‘사이코

지만

괜찮아

’는

각기

다른

사연

으로

심리적

불안감에

시달리는

결핍과

상

처투성이

주인공들이

서로를

보듬으며

치유,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박신혜는

극중

외로움에

익숙한

유년시절을

보내고

성인이

된 뒤

극단적

이기주의와

안하무인,

무

례함의

끝을

보여주는

캐릭터

제안을

받았다.

심기를

건드리는

대상에

대해

참지

못

하고

폭발하는

성격으로

거친

말투와

행동

에

사로잡힌

인물이다.

따라서

그동안

드러

내온

애교

넘치고

생글생글

미소

짓는

사랑스러운

매력을

완전히

지워내야

한다.

이에

박신혜는

로맨틱

코미디와

멜로에

서

벗어나

장르를

확대하는

방식의

무대를

먼저

택했다.

올해

4월

촬영을

완료한

공포

영화

‘콜’이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긴

머리

카락을

단발로

자르는

등

의욕적으로

임했다.

영화는

서로

다른

시간에

살고

있는

두

여자가

한

통의

전화로

연결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백슬미 기자 bsm@donga.com

장동민, 하선호에 ‘변호 요구’ 구설

개그맨 장동민이 tvN 예능프로그램 ‘플레이어’ 속 발언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 장동민은 1일 방송에서 ‘쇼미더머니’를 패러디한 ‘쇼미더플레이’ 코너에서 심사위원 역할을 맡아 미성년자 래퍼 하선호에게 전화번호를 달라는 뉘앙스의 말을 내뱉었다. 이어 거절당하자 경연에서 떨어뜨렸다. 이에 시청자들은 장동민이 미성년자 여성에게 전화번호를 요구하고 이를 거절당하자 ‘갑질’을 한 게 아니냐며 비난했다. 일부 시청자는 콩트 개그일 뿐이며 과도한 비판이라는 목소리라고 말했다.

권상우, 성수동 세차장 사장님 됐다

연기자 권상우가 세차장 ‘사장님’이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권상우는 5월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세차장의 문을 열었다. 연면적 616㎡ 크기에 5개의 세차 공간과 9개의 탈수구역 등 시설을 갖췄다. 2층에 자신의 기획사 사무실을 차린 그는 2016년 이 건물을 매입했다. 권상우는 가끔 직접 세차를 하며 손님을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